

# 경기 인근지역 야생식물 종자의 분류군별 수집

(국립수목원 위탁과제, 2015)

최충호, 곽명철

## 요 약

본 연구는 야생 식물의 생물다양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내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하였다. 경기, 강원, 인천지역의 종자 수집 식물은 총 70종 102점이었다. 희귀식물 총 30종 중 멸종위기종은 5종이었으며, 위기종은 5종, 취약종은 11종이었다. 약관심종은 7종이었으며, 자료부족종은 2종이었다. 또한 특산식물은 7종이었다. 지역별로는 가평 등 총 15개 지역에서 종자가 수집되었는데, 총 102점 가운데 가평지역이 28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제>양평>정선>여주>강화/포천>오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I. 서 언

최근 생명자원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의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세계 생명자원전쟁에 대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세계식물보전전략(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에 대한 국가 의무의 수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新)성장동력산업인 종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종자은행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seed source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신설 Seed Vault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조성 전략의 조정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내 야생식물종의 지역별, 분류군별로 종자수집을 통해 야생 식물의 생물다양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